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Washington, D.C. Established since 1980

2015 년 제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 총회 회의록

일시: 2015년 7월 18일(토) 오후 4시 -5시 25분(1시간 25분)

장소: Montclair/Palisades/Princeton, Teaneck Marriott Hotel, NJ

사회: 최미영 총회장, 기록: 오정선미 사무총장, 정족수: 64명

1. 회장 인사 및 개회 선언

참석 학교의 대표 2 인이 회원 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총회장에 입장하다. 최미영 총회장이 인사말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다.

학술대회 참가 회원교 170 개 학교 (총회 총 참가 가능 회원 340 명) 중 64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33 회 정기 총회 성원에 필요한 정족수는 학술대회 참가 회원 수의 1/3 이상 되어야 하지만 관례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자는 최미영 총회장의 제안에 참가회원들이 '예'로 대답을 했기에 성원이 된 것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2. 회순 통과

- 1) 프린트물 1 쪽에 총회 아젠다가 있고 13 개 항목이 있는데 이대로 받기를 최미영 총회장이 요청하다. 이에 명계웅 회원의 동의와 김대영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모두 '예'로 답함으로써 회순이 통과되다.

3. 32회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 1) 최미영 총회장이 전 회의록은 학술대회 강의를 42-42 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낭독 없이 그대로 받기를 요청하다.
- 2) 이에 심운섭 회원이 전 회의록의 43 쪽에 오자와 탈자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고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하여 받기로 이광호 회원의 동의와 명계웅 회원의 재청으로 통과되다.
- 3) 최미영 총회장이 수정 사항을 수정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웹사이트에 수정된 32 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올려놓겠다고 말하다. (첨부파일 1: 수정된 32 회 정기총회 회의록)

4. 협의회 사업 보고

- 1) 최미영 총회장이 학술대회 강의를 45-46 쪽으로 서면 보고를 하다.

- 2) 총회 참석 전에 학술대회 강의록에 있는 회의록이나 사업보고서 등을 읽고 오면 시간 절약이 되겠다는 방정웅 회원의 참고 발언이 있었다. 이에 학술대회 등록 시에 안내가 나가도록 공지하겠다고 총회장이 말했다.
- 3) 강의록 45 쪽에 기재된 2015 년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김경옥 회장님 이름이 틀렸다는 허낭자 회원의 지적이 있었다.
- 4) 강의록 46 쪽,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 연수회 참석 부분에 총회장 이름 앞에 들어간 *표시를 없애야 한다는 정광현 회원의 지적이 있었다.
- 5) 사업 보고에 대한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면 지적된 오타를 수정해서 17 대 사업 보고서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함으로써 사업보고를 마친다. (첨부 파일 2: 수정된 17 대 사업보고서 참조)

5. 2013-2014 회계 연도 감사 보고 (심운섭, 신현주 감사)

- 1) 신현주 감사가 감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하다. (첨부 파일3: 감사보고서)
- 2) 재정 부분에 대한 보고 (요약)
- 3)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그대로 받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다.

6. 2013~2014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 1) 2013~2014 년도(2013 년 9 월 1 일~2014 년 8 월 31 일까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는 16 대 재무가 보고해야 하나 16 대 총회장과 재무 두 분이 다 참석치 않은 관계로 현 재무인 유미순 재무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된 내용을 보고하다. (첨부파일 4: 2013-2014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참조)
- 2) 관련 보고서를 핸드아웃으로 나누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정광현 회원의 질문이 있었고 관련 재무보고서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웹에 올리겠다는 최미영 총회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어 웹에 올리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는 심운섭 회원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예전에는 학술대회 강의록에 실었지만 우리 회원들만 보면 좋겠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 협의회 내부 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는 최미영 총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회원의 요청이 있으므로 즉시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참가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발표 시에 PPT 로 하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내년에는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나갈 때 회수하자는 명계웅 회원의 발언과 내년에는 프린트물에 번호를 붙여서 나눠 준 후에 다시 거두겠다는 최미영 총회장의 발언이 있었다.
- 3) "2013-14 년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안 한 것으로 안다. 미결된 감사인가?"라는 정광현 회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16 대에 대한 감사를 3 회에 걸쳐서 했고, 2014 년 9 월 1 일 이후에 있었던 감사보고(재정보고)는 아직도 미결인 사안이다. 16 대 총회장과 재무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보고는 17 대 재무가 읽어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심운섭 감사의 발언이 있었다.
- 4) 금번 보고는 16 대 사안이므로 17 대는 아는 바가 없다. 16 대 보고 사항이므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다. (최미영 총회장)

7. 2014-2015 회계 연도 예산안 심의 및 통과 (최미영 총회장)

- 1) 2014 년 9 월 1 일에서 2015 년 8 월 31 일까지 즉, 전년도 예산안 심의이다. 지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결정된 예산이나 16 대의 재정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정 예산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가결되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어저께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최미영 총회장) (첨부파일 5 참조)
- 2)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지 궁금하며 또 그 전 해 지출에 따라 %를 정해 세우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측정을 하기가 어려우니 포맷을 좀 바꾸면 좋겠다.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회계나 재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포맷을 바꾸면 좋겠다. (허남자 회원)
- 3)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포맷을 바꾸도록 하겠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양해 바란다. (최미영 총회장)
- 4) 허남자 회원은 CPA 다. 저런 분에게 조언을 구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명계웅 회원)
- 5) 15 년 전에 낙스에 왔을 때도 협회비가 50 불이었는데 지금도 50 불이다. 이사님들께서 고려하셨다가 좀 올리면 좋겠다. (정광현 회원)
- 6)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같은 의견이 있었다.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75 불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결의를 한다고 해도 회원교에서 내야 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협의회회장단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긴 하나 오늘 총회에서 회원교 여러분이 결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하다. (최미영 총회장)
- 7) 김정자 회원 동의, 고은자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가하시면 '예'로 대답하라는 질문에 회원들이 '예'를 함으로써 2014-2015 회계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다.

8. 2015-2016 년도 사업안 설명 내용 (최미영 총회장)

- 1)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2)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한 순회 연수회
- 3) 차세대 교사/학생 워크숍
- 4) 교사 집중연수회
- 5) 20 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및 실시
- 6) 나의꿈말하기 발표 대회 -이번에 3 명만 발표 대회 형식으로 한 것은 지역협의회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이었다.
- 7) 정주영 에세이 컨테스트 -9 월 21 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8) 김구재단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 9) SAT 한국어 교재 발간 및 판매
 - A. 10 년 전에 SAT 한국어 교재를 했고 발간 현재 100 여 권 남아있으며 2013 년에 전문위원회가 결성되어 교재를 만들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SAT 교재를 출판한 계획이다. 남가주에서 만든 SAT 한국어 교재는 60 불인데 , 우리는 10 불에 팔고 있다. 작년에 SAT 교재 출판을 위한 지원금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미국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다.
미주 외에도 전 세계의 한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재다.

B. 이번에도 10 불에 팔 것인가? (이광호 회원)

C. 계산을 잘 하여 정하겠다. (최미영 총회장)

10) 백서 및 서식집 발간: 서식집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 PDF 와 Word File 로 웹에 올리겠다.
학교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11) 표준 평가 문항집 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한글학교한국어>와 <맞춤 한국어>가
있는데 <한글학교 한국어>는 더 이상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맞춤
한국어>교재를 가지고 평가지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공인된 평가지는 토픽(성인)과
SAT(7 학년)인데 우리 실정에 맞는 기초 및 초급 평가문항집을 발간하려고 한다

12) 홍보 자료 발간 및 발송

13) 협의회 회보 발간 및 발송

14) 한인 교육 연구지 발간 및 발송

15) 협의회 웹사이트 강화 및 개발 유지

16)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

17) 임원회의 / 이사회

18) 기타

A. SAT 한국어가 교재인가 문제집인가? (심운섭 회원) → 전문위원들이 지난 6 년간 나온
문항을 연구 분석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좋은 내용을 만들고 있다. 부록으로 주요
단어와 문형 리스트도 다 넣어서 교재 및 문제집을 만들려고 한다. (최미영 총회장)

B. 감사로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 17 대는 마이너스 재정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협의회 지원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어서 한 지역에 1,000 불씩
14,000 불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예산은 넣지 말고 사업계획으로 지역협의회
지원이라는 항목을 기타항목에 넣었으면 한다. (심운섭 회원)

C. 지역협의회 1,000 불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교사를 잘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 번 항목에 순회연수회를 넣었는데 이것은 맞춤형
연수로 지역협의회를 위한 행사이다. 지역협의회 지원이 돈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재정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하고 싶다. 이사님들
회원님들께 우리 재정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영 총회장)

D. 한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개별학교는 느는데 지역협의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번에 중서부협의회에서 연수회를 하는데 지원금을 5,000 불을 받는다.
교통비와 강사료를 지급한다고는 하나 나머지는 우리 협회가 부담을 해야 한다.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다. 지원금 1,000 불을 받았으면 좋은데 사정이 그러니 한 가지 방법으로 SAT
교재를 120 불 정도로 비싸게 받을 것을 제안한다. 돈이 생기면 지역협의회에 1,000 불
보조를 부탁한다. (명계웅 회원)

- E.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올해로 11 회 대회가 되었고 그간 내외분들께 감동을 준 대회였는데 어제는 현저하게 감동이 줄어든 느낌이 있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예산 지출에도 1,000 불이라고 되어 있었다.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었던 대회인데 지혜를 모아서 동영상으로 예선을 치른다든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대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소문에 지역협의회장들이 추천해서 발표자를 뽑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도 참 많았다. 훨씬 더 실력이 있고 또는 더 큰 감동을 주는 학생은 아예 참가할 기회나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동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심수목 회원)
- F. “나의 꿈 말하기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고, 예산을 받을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지난 1 월 지역협의회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축소해서 하고 3 명만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지역은 0 순위고 나머지 1 순위와 2 순위 순으로 오는데, 못 오는 경우는 다음 순위 지역이 오게 된다. 나의 꿈을 위한 지원금 마련에 노력해서 좀 더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미영 총회장)

19) 홍태명 회원 동의, 심운섭 회원 재청이 있었다. 이에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2015-16 년 사업계획안을 통과하다. (첨부파일 6 참고)

9. 2015-2016 회계 연도 예산안 심의 및 통과

- 1) 질의 사항에 SAT 한국어를 만드는데 15,000 불이 들어가는데 판매 대금이 5,000 불이면 수입 예산이 안 맞는다. (정광현 회원) → 17 대 집행부 임기가 2016 년 8 월 31 일에 끝난다. 교재가 6,7 월 말에 나온다고 계획하고 최소경비로 잡았다. 남은 책은 18 대로 넘어가서 18 대 수입이 될 것이다. (최미영 총회장)
- 2) 후기 이월금이 0 원이 된다. 후기 이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다. (심운섭 회원)
- 3) 현재 발표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 예산안이다. 결산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최대한 많은 이월금을 18 대로 넘겨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최미영 총회장)
- 4) 17 대는 16 대에서 얼마나 받았나? (명계웅 회원)
- 5)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재정을 넘겨받았다.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동의 재청으로 가결해 주십시오. (최미영 총회장)
- 6) 심용휴 회원 동의와 최경복 회원의 재청 이후, 가부를 물어 회원들이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2015-2016 회계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다. (첨부파일 5 참고)

10. 이사회 보고

- 1) 장동구 이사장이 이사회 결정 사항을 보고하다.
- 2) 2015 년 7 월 16 일 정기이사회에서 선출이사 3 명을 인준했다. 서북미 최기선, 동남부의 김옥현, 홍승희 회원이다.

- 3) 2015 년 5 월 23 일, 헌장 제 9 조에 의거, 전 강용진 총회장 제명이 결정되었다. 사인은 다음과 같다.
 - A. 재미한국학교의 정관 및 관례를 무시한 부적절한 직무 수행
 - B. 재무가 자주 바뀌고 총회장 단독으로 부적절한 재정 관리로 인한 총 19,920 불 적자 운영은 물론 이월금도 없이 넘겨서 17 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C. 전 후반기, 2 년에 걸쳐서 감사 지적 사항을 지금까지 불이행하고 있다.
 - D. 인수인계 미시행으로 인한 불법 사항이 있었는 바 임기 2 년 동안 모든 재정서류 및 Bank Statement 를 2015 년 7 월 10 일 현재까지 인계하지 않았고, 임기 후인 2014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9 일까지의 모든 재정 서류 및 Bank Statement 도 인계하지 않아서 16 대 감사를 종결하지도 못하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의 적절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관계로 불행한 일이지만 징계안이 상정되어서 강용진 전 총회장의 제명이 결정되었다. (장동구 이사장)
- 4) 이상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였다. 보고 사항에 관한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다. (최미영 총회장)

11. 기타 토의사항

- 1) 2016년 제34회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장소 발표:
 - A. 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지로 콜로라도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최미영 총회장)
 - B. 이에 유미순 콜로라도협의회 회장이 열심히 모금해서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인사말을 하다. (유미순 회장)
- 2) 2017년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장소 확정:
 - A. 2013 년에 계획된 학술대회 순서에 따라 2017 년 학술대회는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할 예정이다. 선우인호 동남부지역 회장님이 지난 4 월에 지역협의회 총선에서 재선되었으므로 내후년 학술대회를 잘 준비해 주실 것이다.

12. 후원자 발표

- 1) 학술대회 강의록 51~52 쪽에 후원자 명단이 있다. 어려운 재정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지역협의회장님들도 후원하시고 임원들, 선출이사, 기타 지역에서 후원하셨다. 특별히 김정자 부회장이 개미군단을 조직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MOU 를 통해서도 받았다. 협의회 웹사이트 후원명단에도 올려져 있다. 동북부지역협의회에서 학술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금하셔서 25,000 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최미영 총회장)

13. 기타 토의 사항:

- 1) 강의록 44 페이지를 보시면 34 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로 콜로라도가 되어있는 광고가 실려 있다.
- 2)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정광현 회원이 회비를 올리자고 총회에서 제안하신 고로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14. 폐회

명계웅 회원 동의, 방정웅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회원들이 '예'를 함으로써 오후 5시 25분에 최미영 총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